

# 김달수의 「후예의 거리」 연구

## - 도쿄의 모조도시인 경성에서 부유하는 지식인들 -

변정아\*  
free417@naver.com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민족의식이 싹트는 고창륜의 변화 |
| 2. 도쿄의 모조도시인 경성의 이중적 풍경 | 5. 마치며               |
| 3. 부유하는 지식인             |                      |

主題語: 후예의 거리(Descendant's Street), 부유하는 지식인(intellectuals drifting), 민족의식(national consciousness), 일본제국주의(Japanese imperialism), 모조도시(the imitation city)

## 1. 들어가며

김달수(金達壽, 1919~1997)의 최초의 장편이며 최초로 출판된 「후예의 거리(後裔の街)」(朝鮮文藝社, 1948)는 그의 경성 방문과 「경성일보」 기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10살 때 일본으로 건너간 후,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김달수는 1940년에 고국을 방문하고, 1943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경성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김달수에게 경성에서의 생활과 기자로서의 경험은 식민지시대에 억압받고 있는 조선인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경성일보」의 사회부 기자를 했던 것은 김달수에게 있어 피지배자로서 당하는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일제 권력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는 항일 운동가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직접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런 고국에서의 생활은 그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며 작가로서 민족의식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다.

김달수가 방문했던 1940년대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시작해 조선을 병참기지화하여 수탈이 극에 달하고, 독립군들이 하나로 합쳐져 광복군을 조성했던 혼란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를 경험한 김달수의 눈에 비친 고국의 모습은 불행하고 암담했다. 그래서 경성에서의 생활을

\*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시간강사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을 시작한 것이 「후예의 거리」이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고국에서의 체험은 「후예의 거리」의 주인공 ‘고창륜(高昌倫)’이 경성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 만난 지식인들의 실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자각하여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화하면서 경성을 서양의 모조품인 일본 도쿄(東京)를 모방한 더 심각한 이중의 모조도시로 만들고 있었다. 한 거리에 근세와 근대가 뒤죽박죽인 모습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신념과 행동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조도시 경성이란 공간은 그 시대 지식인들의 굴욕과 모순된 조선의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달수는 작품의 무대를 일본이 아닌 조선으로 옮겨와 고창륜의 시선으로 관찰되는 경성의 모습과 그가 만나는 조선 지식인들의 고민과 안주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 민족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후예의 거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달수의 작품 연구의 일부분에 언급되어 다른 작품과 비교)되는 정도이지 단독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이한창(2015)은 「후예의 거리」의 등장인물을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젊은이들의 갈등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환기(2005)는 “조국을 잃은 한 인텔리 청년의 암담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려는 투사정신”<sup>3)</sup>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후예의 거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경성의 이중적인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민중들, 그리고 현실과 이념에서 방황하고 떠도는 지식인들의 변민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소용돌이 속 고국에서 이방인이 아닌,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면서 민족주의자로 변모해가는 ‘고창륜’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도쿄의 모조도시인 경성의 이중적 풍경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은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 의미이다. ‘억압하려는 것’과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이 내선일체의 구현을 위해 조선은

1) 朴正伊(2004)「金達壽「京城もの」三部作に見える人物造型の特徴」『한일어문논집』, pp.119-134  
이한창(2015)「김달수의 작품 연구-고국의 정치현실을 그린 문학작품을 중심으로」『日語日文學研究』, pp.227-248. 등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

2) 이한창(2015), 위의 책, p.231

3) 김환기(2005)「김달수 문학의 민족적 글쓰기」『일본어문학』제29집, p.369

근대화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에 일본의 도쿄와 같은 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경성은 변모하게 된다. 일본에 의해 철도, 병원, 백화점 등의 근대적인 시설이 건설되고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는 등 겉으로 보이는 편리함과 화려함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 의해 실시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조선인의 가난은 정당화되었다. 식민지 시기 외적으로 이른바 ‘근대화’가 진행되고 도시는 발달했지만 가난에 찌든 조선인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색해졌다. 전차가 다니는 종로통의 변화가는 주로 일본인들의 영역이었다면 그 뒷골목은 가난한 조선 민중들의 거리였다. 구걸을 하는 아이들, 소매치기를 하는 청년들,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모습들이 바로 경성의 뒷골목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풍경이다. 일본에 의해 경성은 공간적으로 격리가 되었으며 이중적인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성의 거리는 남대문에서 나뉘어져 있는 두 개의 간선도로로 시작되고 있다. 왼쪽의 태평양거리는 폭넓은 아스팔트의 훌륭한 도로이지만, 양측에는 전세기(前世紀)의 유물 같은 오래된 허물어진 기와집의 민가(民家)가 늘어서서 좁은 입구에 오래된 구두나 옷 등을 매달아 놓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그 가게 앞에는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노인이 소리를 내며 달리는 전차를 눈부신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4) (p.35)

남대문에서 이 이상한 대조적인 큰 거리를 왼쪽에서 보고 요란한 전차가 교차해 가는 것과 함께 오른쪽으로 가면 이미 일본인 거리가 활기에 넘쳐 매우 변화함을 보이고 있다. (p.36)

「후예의 거리」에서도 이러한 이중적인 경성에 대한 묘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인이 다니는 거리는 넓고 깨끗하며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그 반대 구역인 조선인의 거리는 좁고 먼지를 뒤집어 쓴 것과 같이 방치되어 있는 낡은 곳이다. 도시적 속성인 변화하고 활기에 찬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사는 경계가 분명하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조선인이 받는 모욕과 멸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경성이라는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어도 지배자들의 특권의식이 생활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선인 사이에서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뉘어 경성의 거리는 같은 곳이지만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종로의 카페와 술집 안은 지식인과 예술인들의 사교 장소로서 활기를 띄고 있지만, 카페나 술집 밖에는 구걸을 하는 저지 아이들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먹고

4) 金達壽(1980)『金達壽 小說全集4「後裔の街」』(梵摩書房)를 기본 텍스트로 함.

살기 위해 무표정한 얼굴로 구걸을 하는 거리의 아이들은 불안한 공간에 버려져 있다. 밖에 버려져 있는 거지들을 흥인식은 그들만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서 먹을 것을 요구한다.

몸에 붙은 때가 굳어져 그대로 검은 피부가 되었고 눈만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지들은 15-16세에서 7-8세의 아이들로 가장 어린 아이 한 명은 벌거벗은 채이며 그 외의 아이들도 누더기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중략>

다른 손님들도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며 두 사람(흥인식과 마담)의 다툼을 보고 웃고 있었지만, 그 손님들도 흥의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거나 한 두 마디 거들다가 제각기 자신들의 대화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했다. <중략>

마담은 4-5개의 사과를 가지고 와서 입구의 문을 한 발로 잡고 밀어 열며, 바깥 도로를 향해 양손의 사과를 팍 던져버렸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들은 와하며 바깥 도로로 한꺼번에 나갔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담은 문에 열쇠를 잠그고 커튼을 쳤다. (p.25)

하지만 그 아이들은 같은 조선인들에게 더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다시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은 더 굳게 문이 닫히고 만다. 남루하고 보잘 것 없는 아이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거나 흥인식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이 자신들의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이념적으로 방황하는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고민에만 빠져 정작 바로 옆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일로 고통 받고 있는 같은 민족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거지 아이들이 거리에서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얼어 죽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일이 허다해도 일본 경찰은 그저 귀찮은 일로 치부해버리며, 밟아 죽인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벌을 주지 않는다. 거리에 내버려져 있는 아이들은 죽음조차도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경성이란 공간은 양면의 동전처럼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강점기 하에서 질곡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 지식인들과 지배하는 일본인들이 서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그 벽을 높게 쌓아 자기와 다른 부류와 단절을 시키고 있다.

### 3. 부유(浮游)하는 지식인

「후예의 거리」는 주인공 고창륜과 그의 친구인 최계우(崔啓友)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 소위 조선의 지식인들의 고민과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창륜은 7살 때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가서 와세다(早稻田) 대학을 졸업하고 ‘문화재료사(文化材料社)’라는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돌아가신 부모의 유산 덕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 그의 대학 동창인 최계우는 조선의 ‘동방일보사’ 기자이며, 그의 부친은 조선에서도 성공한 실업가이다. 그 외에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 유서 깊은 집안의 아들로 하얗고 수려한 인물인 법과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준(李駿)’, 총독부가 발행하는 잡지에 일본어로 시를 발표하여 자책하다 자살을 하는 궁정시인 ‘정인룡(鄭仁龍)’, 경성대학 재학 중 독립운동에 참가해서 검거된 경력을 갖고 있으나, 취한 탓에 거리에서 자고 있던 거지 아이를 밟아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홍인식’ 등이다.

이와 같이 「후예의 거리」에 묘사되고 있는 등장인물의 공통점은 대체로 지식인 계급이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부르주아 계급 또는 ㅼㅼㅼ부르주아 계급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식민지 지배 하의 조선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준은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더 심해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기 며칠 전에 형사의 눈을 피해 고창륜의 집에 숨어들어온다. 고창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러 온 것이다. 그 부탁을 고창륜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지도 모르지만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고창륜이 고국에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한 놀라움과 자신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고국의 현실에 대해 어리석고 수치스럽다고 얘기를 하자 이준은 자신의 얘기를 담담하게 전해준다.

실은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는 현재를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의 우리들의 운명이라든가 불행이라는 것 등은 오히려 무한한 삶의 활력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번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하는 명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주어진 한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p.76)

현실과 타협하여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과 모든 것을 갖춘 이준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빼앗긴 나라를 찾자 험한 길을 떠나면서 한 이 말은 고창륜에게 감동을 주어 눈물을 흘리게 하며 고창륜이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준의 말과 행동은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기에 당연한 거라는 이준의 담백한 태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방황하고 고민하는 최계우와 홍인식에게도 결정적 영향을 끼쳐 그의 뒤를 잇는 선택을 하게 한다.

나름 신문기자라는 소명의식도 있는 최계우는 조선의 현실을 검열과 견제가 심한 일본 총독부에 맞서 소신 있게 기사를 쓰려고 한다. 최계우의 집에서는 일본어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더욱 심해진 ‘국어상용’ 때문에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을 친구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반면, 집에서는 일본어로 배운 과목을 조선어로 다시 배우는 모순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또한 최계우는 신문기자라는 직업이 시들어가는 조국의 언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변론적으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일본의 상황이 나빠지자 총독부에서는 더 심한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되어 그가 다니던 신문사가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새로운 행동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최계우는 이준을 떠올리면서 고민만하고 행동하지 않는 스스로에게 심한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신문사가 폐업을 하게 되자 실직자가 된 최계우는 조선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떠나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부터 동거를 했던 니시야마 레이코(西山玲子)의 갑작스런 경성 방문으로 최계우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최계우는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의 위치,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진실한 사랑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 온 레이코에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서로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서로 미워하며 경멸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온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애정도 믿고 있다. 희생. - 희생. 코에 철사를 통과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손과 발만을 자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라도, 나는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

(p.123)

최계우의 말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사랑에 있어서도 식민지의 ‘남자’와 지배자 측의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조선’이 다시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인식은 초반부에 거지를 몰고 다니며 그들을 위해 음식을 구걸하는 장면은 그를 기인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중반부에서 밝히고 있다.

술에 취한 밤에 거리의 거지를 밟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6개월 이상을 거의 폐인으로 지내며 거지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음식을 구하고 다니는 홍인식을 보다 못해,

그의 부인은 인식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 ‘계림원(鷄林園)’의 건립을 제안한다. ‘계림원’은 거지들의 수용소로 한시적인 도움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그들을 자립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홍인식이 앞서 갔기에 사고의 책임자가 홍인식이 된 것에 대한 친구로서의 미안함이 많았던 최계우는 누구보다 ‘계림원’의 건립을 환영하며 이름도 직접 지어주며 도움을 준다. 그 소식을 신문에 알려 홍인식을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또 다시 홍인식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 그 결과 ‘계림원’은 일본 경찰에 의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만든다. ‘계림원’의 건립을 준비하며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았던 홍인식은 절망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일본어로 시를 쓴 것에 대해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궁정시인 정인용. 그의 장례식장에서 ‘인터내셔널’을 부르다 경찰에 검거되는 박규와 이종구 등 식민지 지배 하의 조선의 지식인들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자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탄압과 감시에 견디지 못해 그들의 땅인 경성에서 벗어나 중국으로의 이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강력하게 저항하다 투옥하게 되는 등 그들은 이 땅에 안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떠돌게 되는 것이다.

#### 4. 민족의식이 싹트는 고창륜의 변화

일본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던 고창륜에게 이름조차 낯선 고국에서 온 한통의 편지는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다. 고국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경성에 도착하여 고창륜은 다음과 같이 설레임을 표현하고 있다.

창륜은 고조되어 흥분하고 있었다. 종로 “아아, 종로란 좋은 이름이다.” <중략> “나는 정당한 이 땅, 이곳의 사람들에게 속하는 한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그 외의 짐도 아닌 것이다.”라고 창륜은 결의에 찬 것처럼 어떤 궁지와 비슷한 것을 몸 안에서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고국, 고향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는 확실한 하나의 민족을 눈앞에서 보았던 것이다. (p.8)

그리고 경성에 와서 본 여성들의 복장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그것이 친근한 고국의 사람들이며 동포라고 생각하며 경성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기쁨에 차 들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하의 조국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고창륜은 살면서 직접 현실을 목격하게 되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점차 이해하게 된다. 일본에 있을 때는 조선인

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논문 반송 등의 차별은 있었지만, 조국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안고 경성에 와서 보이는 것은 차별과 억압이다. 고국에서 만난 지식인들과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서서히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된다. 민족이 무엇인지, 조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식민지 시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창륜의 고민은 곧 작가 자신의 고민이기도 했을 것이다.

고창륜은 경성에 살면서 동화되려고 노력해가는 조선인으로서의 자신과 이전의 자신을 버리고 변해가는 자신을 비판하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중성에 괴로워하게 된다. 고국이라고 해도 아직 이방인 같은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다. 그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영리(英梨)의 존재이다. 고창륜은 영리를 통해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을 처음 알았고, 그것이 하나의 행복일 거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이중사촌 동생인 영리를 사랑하게 되면서 터부시 되는 조선의 관습과 유교적인 가족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 고창륜으로 하여금 민족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 발전시켜 잊고 있었던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민족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고창륜이 고국에서 겪으면서 느낀 여러 감정과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끝없는 의문이 생기던 차에 형사의 추적을 피해 자신의 방에 숨어 들어온 이준에게 “조국에 오니 놀라운 일투성이입니다. 이렇게 놀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중략> 결국 저는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게 된다. 이에 이준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비꼬아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당신이 크게 놀라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지요. 그런 상대이기에 우리들은 민족을 보존하는 일에 가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놀라움이 진지하게 여겨질수록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p.72)

처절한 만큼 절망에 빠져 있는 조국의 현실과 그의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의 고민과 선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고창륜에게 이준의 지론은 그가 민족의식에 눈뜨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늦은 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준과의 대화를 하는 중에 심한 비바람 때문에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전등을 바라보며 창륜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현실이 운명처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준의 말을 경청하면서 창륜은 속으로 ‘너는 조선인이다.’라고 마음속에서 가만히 탄식해 보았다. 그러자 무수한 운명의 파도가 왈각 밀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준과 헤어지는 마지막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눈물을

흘린 것에 놀랐으며 이 눈물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는 이준과 동지애를 느끼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고국이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창륜에게 고국에서의 생활은 그의 의식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준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의 선택으로 인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도, 반항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맑고 깊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 5. 마치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건설된 경성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되어 가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가려진 조선 민중들의 처참한 현실이 빛과 어둠처럼 공존하고 있다. 경성의 이중성은 일본이 계획적으로 만든 결과이며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여 생활영역까지 지정하고 있다. 게다가 조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하듯이 조선인끼리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거리 한복판이 아닌 거리의 구석진 곳, 뒷골목 등에서 기생하듯이 밥을 구걸하거나, 흠치거나 하는 행위만이 보여지는 경성의 거리풍경은 조선인이 주류가 아닌 주변인으로서 근대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경성의 어두운 단면이다. 종로 뒷골목에서 만난 취객의 “나에게는 자유, 술 마실 자유가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원병으로 보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한 미안함과 전쟁에 대한 원망을 술기운을 빌려 말하고 있다.”라고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식민지 지배 하의 조선 민중의 현실이며 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맨 정신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술에 취해서라도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사람들. 이러한 일반 민중들은 살기 위한 원초적인 고민이라면 조선 지식인들은 차원이 다른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개혁을 꾀하기 위한 추상적인 고민이다. 일제의 탄압 속에 힘이 없는, 힘을 모을 수 없는 조선의 지식인들은 결국 실업자가 되어 망명이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창륜은 고국을 찾아 자신의 터전인 도교를 떠나 경성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의 주변 지식인들은 고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창륜이 처음 경성에 왔을 때는 이방인처럼 어색하고 걸도는 느낌이 있었으나 점차 조선인으로 변해가고 있다. 식모 할머니의 밥 먹는 습관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선의 관습과 현실의 모습을 비판하게 되거나 고국의 현실과 부딪히며 생활을 해 온 결과 개혁을 하고자하는 정열

로 이어지면서 조선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민족의식이 서서히 창륵에게도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김달수는 1997년 일본 ETV의 특집방송에서 역사와 민족에 대해 “특히 재일(在日)의 경우,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학은 인간회복을 위한 학문인데,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sup>5)</sup>고 했다. 자아의 확립을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며 작가로서의 신념을 밝힌 것이다.

김달수가 「후예의 거리」에서 고국을 잃어버린 고창륵을 통해 식민지 지배의 현실, 그 중에서도 지식인들의 고뇌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투쟁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의 조선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김달수는 전집 해제에서 “이 작품이 누구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어온다면 나는 일본 사람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특히 조선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란다고 대답할 것이다. 일본어로 글을 쓰는 이상 조선인 독자를 예상하지 않는다. 조선 사람을 독자로 예상했다면 당연히 조선말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sup>6)</sup>

이와 같이 조선을, 조선 민족을 묘사함으로써 일본인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이려고 하는 작가로서의 의식은 김달수가 문학을 꿈꾸던 것과 같으며 「후예의 거리」의 고창륵이 작가의 분신으로 읽혀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홍인식 부부가 거지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계림원’의 건설에 대한 제시는 조선의 미래에 대한 제시이기도 하다. ‘계림’은 1944년 처음 「후예의 거리」의 2장까지 발표한 잡지이기도 하며,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첩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식민지 지배 하에 있는 조선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아이들에게 식량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한 곳으로 모아 돌보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한 계획은 조선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우리의 후예들인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의 조선을 생각하며, 지금과는 다른 세상하기를 바라는 의지가 엿보인다.

5) ETV특집, “김달수·해협에서의 외침(金達壽·海峽からの問いかけ)”, NHK교육TV, 1997년 7월 30일 방영 김학동(2009)『재일조선인 문학과 민족』국학자료원, p.145

6) 金達壽(1980)『金達壽 小説全集4「解題」』梵摩書房, p.298

**【참고문헌】**

김학동(2009)『재일조선인 문학과 민족』국학자료원, p.145  
 김환기(2005)「김달수 문학의 민족적 글쓰기」『일본어문학』제29집, p.369  
 \_\_\_\_\_(2008)『재일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제이앤씨  
 朴正伊(2004)「金達壽「京城もの」三部作に見える人物造型の特徴」『한일어문논집』, pp.119-134  
 이한정 외(2011)『재일코리아안문학과 조국』지금여기  
 이한창(2015)「김달수의 작품 연구 -고국의 정치현실을 그린 문학작품을 중심으로」『日語日文学研究』  
 pp.227-248  
 小田切秀雄(1980)『金達壽小説全集』6卷、筑摩書房  
 金達壽(1980)『金達壽 小説全集4「後裔の街」』筑摩書房

---

논문투고일 : 2018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

---

**< 要 旨 >**


---

**김달수의 「후예의 거리」 연구**
**- 도쿄의 모조도시인 경성에서 부유하는 지식인들 -**
**변정아**

김달수의 최초의 장편이며 최초로 출판된 「후예의 거리」는 그의 경성 방문과 「경성일보」 기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특히, 「경성일보」의 사회부 기자를 했던 것은 김달수에게 있어 피지배자로서 당하는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일제 권력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는 항일 운동가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직접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런 고국에서의 생활은 그가 조선인의 하나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고, 작가로서 민족의식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국에서의 체험은 「후예의 거리」의 주인공 ‘고창륜’이 경성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 만난 지식인들의 실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자각하여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화하면서 경성을 서양의 모조품인 일본 도쿄를 모방한 더 심각한 이중의 모조도시로 만들고 있었다. 한 거리에 근세와 근대가 뒤죽박죽인 모습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신념과 행동이 어지럽게 뒤엉켜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조도시 경성이란 공간은 그 시대 지식인들의 굴욕과 모순된 조선의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달수는 작품의 무대를 일본이 아닌 조선으로 옮겨와 고창륜의 시선으로 관찰되는 경성의 모습과 그가 만나는 조선 지식인들의 고민과 안주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 민족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김달수가 「후예의 거리」에서 고국을 잃어버린 고창륜을 통해 식민지배의 현실, 그 중에서도 지식인들의 고뇌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투쟁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의 조선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A Study on Kim Dal-soo's 'Descendant's Street,'**
**- Intellectuals drifting in Kyungseong, the imitation city of Tokyo -**
**Byun, Jung-A**

Kim Dal Soo's first feature and first published 「Descendant's Street」 is based on his visit to Kyungseong and his experience as the journalist of Kyungseong Ilbo. In particular, as a local news reporter of the Kyungseong Ilbo was optimum experience for Kim Dal Soo to be able to access miserable life of his compatriots and the struggles of anti-Japanese activists under the pressure of Japanese rule. Life in this home country would have been a process for him to recognize himself as one of the Joseon people and to establish a national consciousness as a writer. Although it was only a short period of time, the experience in the home country helped him to write the process of changing national consciousness of Ko Chang Ryun, the main character in 「Descendant's Street」, through his life in Kyungseong and the realities of intellectuals who he met. Japanese imperialism had colonized Joseon, turning Kyungseong into doubled-imitation city by imitating Tokyo which already had imitated the West. The street was in a mess with modern and modern people and people were confused by ideals, realities, beliefs and actions. This dual imitation city of Kyungseong highlights the humiliation of intellectuals of the time and the reality of Joseon in contradiction. Kim Dal Soo is expressing his national consciousness by setting the stage of his work to Joseon, not Japan, through Ko Chang Ryun's perspective of the Kyungseong life that cannot be settled down and concerns of the Joseon intellectuals who he meets. In 「Descendant's Street」, Kim Dal Soo is showing the reality of colonization through Ko Chang Ryun, who has lost his homeland, especially by showing the intellectuals' torment and their will to fight for independence without fear of death.